

서구 서창동 하천 부지, ‘나눔누리숲’으로 재탄생

불법 적치·무단 점유 지적 받아와 ‘벧사공 박호련’ 정신 담아 재정비 ‘역사·노을마루’...열린 문화쉼터로 “따뜻한 발자취 계승, 여유 즐기길”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하천 부지가 역사와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 서구는 불법 시설물도 방치돼 있던 해당 부지를 ‘나눔누리숲’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하고, 지난 20일 개방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창동 하천 부지 일대는 무단 점유 시설과 적치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열린 쉼터로 탈바꿈하게 됐다.

‘나눔누리숲’은 일제강점기 서창나루의 마지막 벧사공으로 알려진 박호련의

나눔 정신에서 출발했다. 그는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는 등 평생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던 인물이다.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서창 주민들이 4년에 걸쳐 세운 두 개의 송터비도 이번 이전·정비돼, 공간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이 숲은 박호련의 삶과 나눔 정신을 테마로 한 ‘역사마루’와 노을 풍경을 담은 감성 공간 ‘노을마루’로 구성됐다. 두 공간은 계단으로 연결돼, 역사가 노을과 만나고, 과거의 나눔이 미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징적 흐름을 담고 있다.

‘역사마루’에는 나룻배 광장과 나눔정원, 착한계단이 조성됐고, ‘노을마루’는 야외무대와 피크닉존, 서구의 영문 이니셜 ‘S’를 형상화한 산책로가 어우러진 문화 쉼터로 꾸며졌다.

서구는 나눔누리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 영산강



광주광역시 서구는 서창동 하천부지를 역사와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나눔누리숲’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광주 서구 제공**

변 데크길과 광주시가 추진 중인 노을전망대와의 연계를 통해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경 서구 공원녹지과장은 “나눔누리숲은 선인들의 따뜻한 발자취를 계승

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노을과 함께 마음의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남구, 대선 투표과정 점검 총 유권자 17만6000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광주 남구 유권자는 총 17만6417명으로 집계됐다.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는 2492명이다.

21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관내 유권자 수는 17만641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50대 유권자가 3만3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유권자가 3만2524명으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과 60대 유권자는 각각 3만 808명과 3만349명이었으며, 30대와 20대 유권자도 각각 2만3058명과 2만24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유권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부분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1.41%를 차지했으며 관내 최고령 유권자는 만 113세 여성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모의시범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투표소는 남구 17개 동별로 1곳씩 총 17곳에 설치된다.

본투표는 6월3일 진행되며 남구 관내 17개 동에 총 53개 투표소가 설치된다. 본투표는 거주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이정준 기자

제1회 ‘무등문학상’ 공모 북구, 6월30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 북구가 제1회 ‘무등문학상’ 작품 공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무등문학상’은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 열풍 속에서 역량을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문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북구가 신설한 문학상이다.

공모 대상은 창작활동을 하는 전국의 작가이며 대상 부문과 작품상 부문으로 나눠 오는 6월30일까지 응모를 받는다.

대상 부문은 최근 3년 이내 출간됐으며 타 문학상 수상 이력이 없는 개인 작품을 모집하며 등단 작가만 응모할 수 있다. 작품상 부문은 운문, 산문 및 평론 분야로 등단 여부에 관계없이 발표된 적 없는 창작 시·소설·수필·동화·평론 등을 접수한다.

응모는 한 사람당 한 개 부문 및 분야에 한 가능하며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7~8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작품상 2명(운문 1명, 산문 및 평론 1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8월 중 북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0만원, 작품상 각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시상식은 오는 9월26일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진행될 계획이다.

작품 접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북구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정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무등문학상이 지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 문학의 미래를 밝히는 등 불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3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무등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정승우 기자

‘민생 회복’... 구청장협의회, 전통시장서 현장 소통

남광주시장서 5월 정례회 개최 “정책연대·실천방향 지속 발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들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21일 오전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5월 정례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경제의 상징적 공간인 전통시장에서 개최돼 현장 중심의 소통과 활력 회복의 의미를 더했다.

회의에 이어 구청장들은 시장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시장 내 음식점에서 직원 40여명과 함께 조찬을 가졌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공동 논의·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설 명절에는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에 자치구별 예산을 추가 투



광주구청장협의회는 21일 오전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5월 정례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입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정책을 시행, 시민 체감형 지원책을 실현한 바 있다.

임택 광주 구청장협의회장은 “남광주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이자 지역 상권의

생동감이 깃든 공간”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연대와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동구, 서남로 ‘대자보 구간’ 조성... “보행도시 전환”

보도 확장·가로수 식재... 편의↑ 푸른길-광주천... ‘녹색 교통축’ 청사 주차장도 친환경 공원과 ‘사람 중심, 대자보 실현 앞장’

광주광역시 동구가 청사 앞 서남로 일대를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시범구간으로 조성, 친환경 도시문화 조성에 본격 나선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종합건설 본부는 사업비 138억여만원을 투입해 동구청사에서 조선대학교 사거리까지의 폭 20m 4차로 도로를 폭 30m 5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서남로 도로 확장 공사’를 펼치고 있다.

동구는 이번 도로 확장에 맞춰 ‘동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보도를 확장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며, 인도에는 2열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추진하는 서남로 ‘대자보 거리’ 조감도. **광주 동구 제공**

이를 통해 푸른길에서 동구청사(서남로)를 지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웨딩거리, 광주천으로 이어지는 ‘녹색 교통축’을 형성,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주차면수가 기존 154면에서 90면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민원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응급차와 특수 관용차량, 직원 차량

은 동구의회 건물 뒤편 주차타워 예정 부지에, 일반 관용차량은 동명동 어린이복합문화관 부지를 활용해 분산 주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문제로 중단된 5층 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하고, 추후 청사 주차장을 전면 공원으로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녹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 진출입로는 KT광주정보통신센터 방면으로 이동되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청사 정문은 기존 위치에 유지돼 시민들의 보행 접근을 허용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사람 중심 보행도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걷자임’과 ‘직원 대중교통 출근의 날’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대자보 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대선 투표소 화재 안전 점검 광산구, 하남동 내 5곳 대상

광주 광산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대학교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와 함께 하남동 내 투표소 5곳을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화재 수신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유지관리 상태 확인 △비상구 및 피난 경로 확보 △화재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이동조치 △비상구 등 피난 방화 시설 유지·관리 여부 확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유권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남대학교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원 10명이 참여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은 선거일 이전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박혜경 하남동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투표소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